

# 조직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지원 체계에 관한 소고

## -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도서관

박 강 수

### 〈목 차〉

- |                     |                     |
|---------------------|---------------------|
| I. 서론               | 2) 전문 사서의 기능        |
| II. 조직환경의 변화        | 3) 사서직의 위상          |
| 1. 조직의 개념           | 2. 장서개발 및 공동활용      |
| 2. 대학도서관 조직의 특수성    | 1) 장서개발정책           |
| 3. 도서관 환경의 변화       | 2) 장서의 공동활용         |
| III. 대학도서관의 행정지원 체계 | 3) 컴퓨터를 축으로한 도서관 협력 |
| 1. 사서직의 전문화         |                     |
| 1) 전문직 시스템          | IV. 결론              |

## I. 서 론

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생활의 변화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지식 기록의 양이 증가되고 있으며, 출판 및 정보전달 매체등의 지속적인 변화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안될뿐 아니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이 급등하고 이용자의 요구가 전문화, 최신화 되고 있으므로 한 도서관이 모든 주제의 자료를 완벽하게 소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른바 문헌의 홍수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 대학 도서관 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발전하는 대학 사회의 문헌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의 구성이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자료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부족한 자료 구입비만으로는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IMF라는 한파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새로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이 이와같은 현실적 여건속에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자들과 현장의 실무 사서들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왔으며, 이들은 주로 도서관 자료의 공유와 전산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간의 협력은 이론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걸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즉, 예산의 문제와 사서들의 인식의 문제, 제도의 문제, 연구자들의 태도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같은 문제의 인식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행정 지원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조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사서직의 전문성과 도서관 장서개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장서의 공동활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량의 급증과 그 비용의 상승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조직 환경의 변화

### 1. 조직의 개념

조직의 개념은 관점이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몇몇 학자들의 일반조직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근대 조직론의 원조인 바나드(C. I. Barnard)는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두사람 이상의 구성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정된 인간행동 시스템”이라 정의 하였으며, 스튜어트(R. D. Stueart)와 모란(B. B. Moran)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 목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구조”라고 하였고, 왈도(D. Waldo)는 “조직은 행정의 골격이며 관리는 행정의 생리이다. 즉 조직은 구조이고 관리는 기능을 뜻한다. 그러므로 조직과 관리는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대학도서관 조직의 개념을 살펴보면 윌슨(L. R. Wilson)과 토버(M. F.

Tauber)는 대학 도서관 조직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세심하게 한정되고 조정된 권한의 구조설정”이라 하였고 김명옥은 대학도서관 조직이란 “대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의 직무를 할당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며 각 직무의 상호관계를 정한후,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하는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견해와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조직과 도서관 조직에 관한 정의로부터 공동목적, 직무의 분화 및 조정, 권한과 책임, 인간행동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성립조건들을 추출해 낼 수가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조직은 도서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직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립한 인간행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2. 대학도서관 조직의 특수성

대학도서관 조직은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과 정보에 기초를 둔 조직체의 제요소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봉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조직의 구성원이나 도서관 경영자를 위해서가 아닌 이용자라는 특수한 고객의 조사,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자료를 수집, 정리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곳으로 일반 기업체의 관리부서나 조사 개발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가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나 효과를 확인 하거나 평가할 수 없으며 도서관 이용자의 힘이 강력해서 도서관 내에서 행해진 관리적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학술활동과 조사,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반 자율적인 지원시설인 동시에 종속기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획, 예산, 인사, 관리 및 봉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기관의 모체인 대학 당국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정보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수립하는 점이 효율적인 도

서관 관리와 질높은 도서관 봉사를 유도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교육, 조사, 연구, 구입, 회계, 직접적인 고객봉사 및 컴퓨터 업무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취급하는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공존하는 특이한 조직체로서 전통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익숙한 복잡한 조직체이다.

이와같은 특수성을 가진 대학도서관은 우리 국가의 유산, 인간의 유산, 우리 국가의 승리와 실패에 대한 기록, 인간의 지적, 과학적, 예술적 업적에 대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합적 기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도서와 기록을 우리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생성되었으며, 전통이 하나의 강력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학도서관 환경 때문에 전통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민감한 다른 기관과 보조를 같이하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화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3. 도서관 환경의 변화

조직은 인간의 집합체로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되고 또 재구성되는 사회적 단위이다. 조직은 일단 성립한 후에 항구 불변하거나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성장, 발전하고 또 쇠퇴, 소멸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집합체인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 성장, 발전 하려면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제반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거나 그러한 여건에 적응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엄청난 조직내외의 도전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종이위에 인쇄하여 사용하던 정보와 지식이 전자 테크놀러지에 의해서 보완되고 대체되어 가고 있고, 이와같이 전자식 정보에 직접 액세스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훨씬 다양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1세대 및 2세대 시스템이 퇴화되어가고 각종 광학제품과 온라인 액세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실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같은 급격한 환경변화는 도서관 조직으로 하여금 유연성을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조직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질높은 도서관봉사를 이끌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커(W. W. Wicker)는 그 요인으로 도서관의 직원규모와 장서량, 경제적 이유, 효율성 제고, 대학당국 및 도서관직원으로부터의 압력, 체계적인 경영평가, 주제분야간의 관련성 증가 및 진화, 질높은 봉사 등을 제시하였고, 윤희윤은 도서관 규모의 변화, 도서관자동화, 정보기술의 도입, 이용자요구의 변화 그리고 기타 조직환경요인을 조직변화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같이 대학도서관의 조직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학도서관마다 독특한 상황요인으로 인하여 조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 Ⅲ. 대학도서관의 행정지원체계

#### 1. 사서직의 전문화

##### 1) 전문직 시스템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 또는 전문인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문직의 존재는 고대 또는 중세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전문직의 형태는 19세기에 들어서야 내과, 외과의사의 역할을 한 약종상이 출현하여 전문인으로 인식된 후 법률가, 건축가 그리고 회계사 등이 전문인 그룹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들어서는 전문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전문직이 세분화된 전문영역을 선언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조직은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직을 정의하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전문직만이 지닌 일련의 속성 및 그 형태를 분석하여 그 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설명되어진다. 윌렌스키(H. L. Wilensky)는 한 직업이 전문직으로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전문직을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첫째, 그 직업이 전임직으로서

업무 분야가 뚜렷해야 하며, 둘째, 이 업무 분야와 관련된 정규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며, 셋째, 전문직의 단체나 협회가 설립되고 전문잡지의 발간 등으로 보다 전문성을 추구하고 나가야 하며, 넷째, 공식적인 윤리강령 및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 분야는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드 베르(De Beer)는 전문성을 지식, 교육, 훈련, 기술 등을 포함하는 지식의 차원, 한 직업에 대한 역할 지향이나 직업 일체감 등을 나타내는 전문성에 대한 지향성의 차원, 그리고 전문화된 공식적인 조직이나 관료 조직을 형성하여 전문적 독점, 권위 그리고 자율성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적 조직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만일 한 업종이 이들 세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전문직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은 장기적이고 정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고도의 지적 식견과 기술을 습득, 연마하여 영리보다는 공공적 사업에 대한 봉사 그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보다 수준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체적 조직과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는 직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 2) 전문 사서의 기능

대학도서관 전문사서의 기능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소 변화하여 오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자료선정과 수집, 분류목록의 기능에 중점을 두었던데 비하여 현재는 전문사서의 정보조사 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도서관 기능의 전자화로 인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도서관에서 전문사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하로(R. P. Haro)는 1) 수준높은 정보조사 제공, 2) 연구자로서 연구팀의 일원으로 행하는 연구 기능, 3) 도서관 이용자교육, 4) 전통적인 선정 수집업무, 5) 연락업무 등을 들고 있으며, 크로스리(C. Crossley)는 1) 이용자에 대한 조력, 2) 서지이용 및 정보조사에 대한 교육, 3) 정보조사, 4) 연계기능, 5) 서지, 안내, 독서리스트 등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제의를 바탕으로 전문사서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이용자에 대한 조력기능, 둘째, 강의와 교육기능, 셋째, 연계기능, 넷째, 정보제공기능, 다섯째, 서지적기능, 여섯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최종해결자 및 문제해결자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다.

### 3) 사서직의 위상

사서란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더구나 사서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다. 이와같은 이용자들의 인식은 그동안 사서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거의 작용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서가 소극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이다. 각자의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전문직 인정을 받기도 힘들 것이다. 사서직은 진취적인 직업이다.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알아 내어야 하고, 필요한 것만을 선택해야 하며, 또 그것을 조직하여 이용자와 연결시켜 주는 일련의 작업들은 의자에 앉아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학 도서관의 전문사서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안내하며 때로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대학의 심장부로서 그리고 학술정보자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전문사서를 확보하고 이들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문사서는 최소한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이나 주제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주제분야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도서관 전문사서들의 주제 전문화는 정보조사 제공의 심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주제전문사서는 대학사회의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이므로 이용자층과 동등한 학력 즉 주제배경이 요구되며 사서로서의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전문직에 대한 대우는 그 교육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전문직 신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한국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기반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이 현장에 대했던 무관심을 반성하고 사서직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현장 감각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도서관 현장에서는 구성요

소(건물, 장서, 사람)의 기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적실성 있는 학문이 됨과 동시에 올바른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장서개발 및 공동활용

### 1) 장서개발 정책

장서개발이란 선정, 수서 또는 장서구성이라는 용어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장서개발이란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약점을 보강하고 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발행된 각종 정보자료를 시의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입수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장서개발 정책은 도서관의 장서에 관한 장단기 목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장서개발은 모든 도서관의 공통된 업무이지만 도서관마다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현격히 다르다. 즉 대학도서관과 같은 교육기관은 기업이나 연구소도서관 보다 자료선정을 더욱 중요시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 연구라는 두가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주제분야에 대한 자료 선정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선정에 대한 책임은 교수, 교수와 사서, 사서, 그리고 주제전문가 등 매우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교수진들은 대학도서관의 수집정책에 커다란 책임을 맡아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늘어나는 예산과 출판량의 증가로 인한 수집정책의 변화는 심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에 의한 자료 선정과 예산의 배정이라는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로 수집정책에 대한 방법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은 교수진들이 도서관 자료구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료의 구입과 장서구성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 왔다. 아직도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규모와 자료가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교수에게 맞춰져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이 그들 기관의 자료 선택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의 충실성, 적합성, 균형성을



위한 자료 선택에는 교수들의 우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매년 훨씬 초과하는 책값의 냉혹한 증가, 대부분 대학의 자료구입 예산의 소폭증가, 단행본 자료구입 예산을 잠식하는 정기간행물 구독료의 폭등이라는 많은 요인이 자료구입 과정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장서를 첨가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해야하는 새로운 자세가 요구된다. 이제 사서들은 전문 서지가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수집과정에서의 도서관과 교수들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길을 통한 구입의 공동결정의 유용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도서선정은 이제 교수들과의 협력하에 사서들의 책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제로서 지정된 책은 교수들이 더 잘 아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사서들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어떤자료를 이용하는지를 관찰하기에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학도서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컴퓨터 기술을 응용하여 자료수집 업무에도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핵심자료의 컴퓨터화는 대학도서관들에게 일상화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장서개발을 포함하여 도서관의 모든 활동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대학도서관들은 서로의 장서를 전자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하여야 할 것이며, 네트워크와 자료공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서들은 네트워크화된 장서들의 장단점과 공동구입 정책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서들이 자료수집에 대한 그들의 고전적 자세를 변화시키려는데 꺼려한다면, 그들은 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공동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는 새로운 선정 책임을 의미하며, 그것은 당연히 사서에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서들은 자료구입 추천과정에 교수들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면서도 또한 대학의 주요 행정자들에게 도서선정 결정은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만 할 것이다.

## 2) 장서의 공동활용

오래전부터 학자들이나 사서들은 하나의 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장서 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겼으며, 또한 이것이 비현실적인 줄 알면서도 장서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어려운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어떤 도서관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소장자료의 공동활용만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오직 현실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어떤 도서관이나 정보기관도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문헌정보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정보기술 및 통신시설의 발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장서의 공동활용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가장 확실하고 활발한 활동은 정보자료의 상호대차이다. 정보자원 공동활용의 선행조건은 참여기관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소장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참여기관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서관 협력체계가 계속성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자원분담과 공동활용에 대한 개념에 차질이 있는 것이다. 분담과 수익의 균등이라는 기본원칙 위에서 상호협조라는 것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남에게서 얻는 것이므로 결국 자기도 상대방이 갖지 못한 것을 무엇인가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웬만큼 가진자들이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교환함으로써 전체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이치 제공능력이 없는 자들의 모임으로는 성과를 볼 수 없고 또 수준의 차이가 심한 기관끼리의 모임도 항상 부담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므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공동활용을 활성화 하려면 첫째, 협력조건이 서로 맞는 도서관끼리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시작해야한다. 관중이 같으면 목표나 봉사이념이 같으니까 공통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립대학끼리 혹은 국립대학끼리의 외형상의 동질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도서관, 대학도서관 또는 국립도서관 같이 관중은 다르지만 단위자원의 내실이 믿을 수

있는 도서관끼리의 공동활용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서관끼리의 모임이 좋다. 실제 이용자들이 서로 도서관의 자료나 시설을 이용하고 자료를 구하는데도 거리가 장애요인이 된다. 또 우편배달에 의존한 상호대차의 문헌전달 방법보다 인편에 의한 규칙적인 배달제도를 쓰는 경우에 지역적으로 가까운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부분적인 작은일을 여러건 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현재 여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실험적으로 하면서 확대해야 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지금처해있는 IMF시대에 환차손으로 인하여 어느 도서관에서나 공통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외국학술지 구독에서 구독료가 얼마 이상인 것에 대해서 협의하여 분담구독을 하는 대신 대상잡지에 대하여 서로 회원기관의 자료제공요구를 다른 자료보다 우선순위 처리를 해 주어 자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을 구하는 것과 별로 다른 불편을 없게 한다든지 또는 해마다 각 기관의 구독중단 간행물의 리스트를 교환하여 조정함으로써 회원도서관 모두가 동시에 같은 간행물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들은 정기간행물 부분에 있어 가장 쉽고 효과적인 자원분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보자원 공동활용의 문제점으로서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만일 모든 도서관이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만 의존한다면 어떤 도서관도 제공해줄 자료가 없을 것이고, 만일 정보자원 공동활용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더욱 정보조사제공의 질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것은 기술적이며 조직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소요 비용이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도서관의 구입 주문이 감소되면 출판사가 자료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출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규모 도서관은 점점 정보자원을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입장이 될 것이다. 정보자원 공동활용의 장애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장애, 경험의 부족, 전통적인 사고방식, 물리적, 지리적 장애, 그리고 법적 절차상 장애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정보자원 공동활용의 최근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많은 정보자원들이 기계가독형으로 축적되

어 이들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자원의 출판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전자출판화 됨으로써 현재의 상호대차 방법보다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문헌 신청자에게 문헌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제공 형태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상호대차란 개념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인쇄매체 정보자원이 존재하는한 상호대차는 보다 개선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3) 컴퓨터를 축으로한 도서관 협력

정보량의 급증과 시대적 요구의 다양화는 도서관 협력의 필요성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다. 아무리 큰 도서관 일지라도 한 도서관 단독의 힘으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수의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등의 협력에 의하여 한도서관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도서관 자동화의 발달과 연결되어 컴퓨터를 축으로 도서관이 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협력조직의 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서관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인쇄기술이 발명된 이후 전세계에는 이미 3천만 타이틀의 도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마다 추정하여 50만 타이틀의 도서와 50-100만 타이틀의 잡지수가 간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도서관 자료로 하여 도서관의 장서에 조직화 하기에는 자료구입비의 규모, 자료의 수장능력, 자료수집의 능력등 어떠한 점에 있어서나 한 도서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각 대학 도서관들은 가정하여 하나의 대 도서관으로 본다면 다소 희망적이라 보아질 수 있다.

네트워크 구조로서 협력수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입수할 자료의 규명, 신속하고 정확한 메시지의 전송, 정보입수와 관련한 정보의 교환, 자료수집 실무에 관한 분석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네트워크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공동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자원의 개발과 효과적인 이용은 도서관과 정보센터, 중개역할을 하는 서비스센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배포하는 대규모 유틸리티간의 협력에 달려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서부터 비로소 도서관 네트

획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 네트워크의 발전은 표준화 및 회원기관간의 상호 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있다.

기술적 발전이 분산화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상호간의 조정문제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협력기관의 개별화에 따른 행정적 방침, 법적지원, 경제적지원 및 계획, 시스템의 개발 및 조정 등의 분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자적 발전은 차후에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네트워크들간의 상호 보완적 이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협력에 있어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협력이 가능한 각 수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자원협력을 위해서 기술적 수준에서는 형식과 프로토콜의 개발에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경영에서의 협력이 더 발전되어야 하며, 개별 기관이나 협력체제는 주어진 여건 및 환경에서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 조직간의 협력이란 서로 준수할 규정 및 규칙이 명확하고 이의 실현이 발전적일 때, 가장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도서관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와 이를 통한 장서개발 정책 및 공동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량의 급증과 그 비용의 상승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 환경이 변화하여 왔으며, 이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행정지원 체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2. 낙후된 한국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기반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이 현장에 대했던 무관심을 반성하고 사서직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현장 감각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도서관 현장에서는 구성요소(건물, 장서, 사람)의 기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진취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전문직에 걸맞

는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출판량의 절대적 증가와 도서구입비의 엄청난 증가는 자료선정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이 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5. 도서관 자료의 구입에 대한 책임은 사서에게 있으므로 교수들과의 협력하에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길을 통한 공동결정의 유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어떤 도서관이나 정보기관도 이용자가 필요로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앞으로 대학도서관들은 컴퓨터 기술을 응용하여 자료수집 업무에도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핵심자료의 컴퓨터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서관 조직이 원활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산화와 함께 직원은 물론이고 도서관 이용자, 학교당국자 등 모두가 도서관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姜鎮佰.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방안. - 國·公立大學을 中心으로". 도서관 vol.49, no.1(1994. 봄). pp.94-112.
- 高泳彩. "情報化 社會에 對備한 大學圖書館 組織改編에 관한 研究 - 國·公立大學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박수진.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새로운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6.
- 徐恩璟. "高度情報社會에서의 司書의 새로운 役割". 국회도서관보 제32권 4호 (1995. 6). pp.5-16.
- 손정표.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vol.37, no.5 (1996. 9,10). pp.288-300
- 윤희윤. 「대학도서관 경영론」. 서울: 경인문화사, 1996.
- 尹熙濶. "大學圖書館 組織構造의 改善模型 研究". 도서관학 22집(1992. 6). pp.397-440
- 정준민. "組織電算化를 통한 大學圖書館 서비스 活性化에 관한 研究". 국회도서관보. 제32권 3호(1995. 5). pp.25-37.
- 최석두.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vol.34, no.5(1993. 9,10). pp.321-327.